



금 65·은 71·동 72 ...6회 연속 종합 2위 수성 목표



“대한민국 파이팅”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단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 45개국 1만1300명 선수단 40개 종목 금메달 465개 놓고 16일 열전

4년을 기다린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이제 이를 뒤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모토로 내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오후 9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봉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남부 수마트라 섬의 중심도시인 팔렘방에서 9월 2일까지 이어질 이번 대회는 18회째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예초 다음 아시안게임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2014년 4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한 뒤 자카르타가 새로 선택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결국 인천 대회 이후 4년 만인 올해 다시 아시안게임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이 모두 참가하고 1만1300명의 선수단이 총 40개 종목에서 금메달 465개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는 36개 종목에 총 439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이번에는 틀러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무도를 비롯해 카드 게임인 브리지, 레저스포츠 영역이었던 제트스키와 패러글라이딩 등이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무대에 오른다.

무도에는 기존 종목이었던 우슈에 새로 추가된 삼보, 주짓수, 쿠라시, 펜카실랏 등 5개 종목이 묶였다. 3대3 농구와 태권도 품새도 아시안게임 세부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5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72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획득해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6회 연속 종합 2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효자 종목’ 태권도, 양궁, 펜싱, 유도를 비롯해 야구, 축구, 핸드볼 등 구기 종목과 클라이밍·패러

글라이딩 등 신규 종목 등에서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인천에서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를 거둬들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인천에서 금메달 151개, 은메달 109개, 동메달 83개를 따면서 1982년 뉴델리 대회부터 9회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본부임원 51명, 경기임원 186명, 선수 807명 등 총 39개 종목에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는 남북단일팀 38명이 포함된 수다.

남북한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이자 국제 종합 대회에서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 ‘코리아’(영어 축약 국가명 COR)를 이번 대회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꾸렸다.

아울러 남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선율을 맞춰 역대 11번째로 공동입장한다.

/연합뉴스

부부 레슬러 부부동반 금 도전



한국 레슬링 첫 번째 ‘부부 국가대표’ 공병민(왼쪽)과 이신혜.

/연합뉴스

남자 자유형 74kg급 공병민
여자 자유형 53kg급 이신혜
“금메달 따고 신혼여행 가야죠”

2014년 11월 결혼에 골인했다. 공병민은 “신혼 생활 초기엔 부부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두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탓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혼연에 매진했다. 웨딩사진도 혼련장에서 레슬링복을 입고 찍었다.

남들처럼 신혼의 단꿈에 젖진 못했지만, 두 선수는 부부의 연을 맺은 뒤 3개월 만에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며 첫 번째 짝을 이뤘다.

힘든 일도 많았다. 이신혜는 국가대표에 선발된 뒤 무릎을 다쳐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다. 공병민은 이듬해인 2016년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선수 생활에 위기를 겪었다.

이때 두 선수는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이며 두 손을 붙잡았다.공병민은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선수 생활을 그만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수는 부상을 받고 다시 일어나 태극마크를 다시 달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동반 출격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다. 공병민은 “내가 첫날 경기를 치르며 아내를 돌볼 날 경기에 나선다”라며 “일단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둔 뒤 목적 높여 아내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펜싱팀 기념촬영 15일 공식 개장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케마요란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남현희(오른쪽), 전희숙(오른쪽 네 번째) 등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기수 남측 임영희 ... 북측은 누구?

남녀북남 차례 남자선수 선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 공동기수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측 기수로는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의 최고참 임영희(38·우리은행)가 입찌감치 낙점됐다.

북측 기수는 오리무중이다. 남북 체육 당국자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접촉해 공동기수를 포함한 공동입장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북측의 공동입장 기수가 늘 개막식

직전에서야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막판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북측 기수는 개회식 직전 대회 조직위원회가 배포하는 각 나라의 기수 명단에야 공개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남북은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국제 종합대회 사상 11번째로 공동입장해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동입장이 성사된 이래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그간 10차례 공동입장에서 남북은 남녀북남(南女北男)

과 남남북녀(南男北女)를 번갈아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따라서 출수 횟수인 이번엔 ‘남녀북남’ 차례다. 임영희의 키가 178cm인 점을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그에 걸맞은 체구의 남자 선수가 한반도기를 함께 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100명, 북측 100명으로 이뤄진 남북 선수단은 공동입장 때 코리아(KOREA)라는 이름으로 주 경기장인 겔로라 봉 카르노 주 경기장을 행진한다. 코리아의 영어 축약명은 ‘COR’이고, 행진 때 주 경기장엔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연합뉴스

북한 역대 자매 림정심·림은심 금메달 유력

북한 역대 자매 림정심(25)과 림은심(22)이 아시아 무대 평정에 나선다.

림정심은 북한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자신 있게 내세우는 ‘금메달 후보’다. 림은심도 아시아 최정상권에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정보망인 ‘인포 2018’가 공개한 정보를 보면 림정심은 여자 역도 75kg급, 림은심은 69kg급에 나선다.

림정심·은심 자매가 성인 국제대회에 함께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림은심은 2017년에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그 해 열린 아시아역도선수권 63kg급에서 우승했다. 림정심은 당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언니’ 림정심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역사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역도 69kg에서 우승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75kg 정상에 올랐다. 올림픽에서 체급은 바뀌며 두 차례나 우승한 림정심이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쉬움만 남겼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69kg급에 나서 4위에 그쳤고, 2014년 인천 대회 75kg급에서는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경쟁자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한다.

림은심도 69kg급 금메달 후보다. 변수는 체급 변경이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에서 63kg급 경기에 나선 림은심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69kg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한국의 김수현과 문유라가 림은심과 메달 색을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